

자포니즘의 특성이 근대 디자인의 형성에 미친 영향

Japonism characteristics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Modern design

주저자 : 강민정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 디자인전공 박사과정

Kang, Min-jeung

In the course work for Ph.D of Design in the Graduate School of Art and Design in
Yeungnam University

교신저자 : 임경호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Lim, Kyung-ho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in the College of Design and Art in
Yeungnam University

1. 서 론

2. 근대로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대두와 전개

- 2.1.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 2.2. 근대사회로의 변화와 디자인의 전개
- 2.3.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성

3. 자포니즘의 형성배경과 근대 유럽에 미친 영향

- 3.1. 에도시대 예술의 특성과 우키요에
- 3.2. 새로운 자극으로서 자포니즘의 형성과 영향

4. 자포니즘의 특성과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관계

5.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19세기 유럽은 근대사회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산업혁명이라는 생산체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시점이었다. 경제활동의 근원이었던 인간의 에너지는 기계 에너지로, 토지는 공장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발전과 새로운 경제력의 주체인 도시의 시민이라는 계층의 탄생을 불러왔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예술적인 부분에서만 전유물이 아닌 대량생산체제에 알맞은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로서의 요구 역시 포함한 의미에서이다. 이에 서구 유럽은 그들의 역사적인 토대에서 되풀이되는 조형적 요소보다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동양의 것들에 심취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포니즘이 형성된다. 서구 유럽에 영향을 미친 동양의 자포니즘은 일본 에도시대의 문화적 산물로서, 그 형성배경에는 에도시대의 사회적 특성이 있다. 에도시대의 사회적 배경은 도시 문화와 시민문화의 발달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근대사회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자포니즘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호기심으로만 촉발된 문화적 영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포니즘은 단지 유행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근대 문화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량생산의 방식으로 디자인의 개념과 중요성이 정립되던 시기에 기성품으로서의 미를 갖춘 자포니즘의 형태적, 색채적, 과학적 구도의 표현은 새로운 미

적, 조형적 요소로서 그 바탕이 되었다. 대량생산과 기계미학에 적합한 기하학적 표현법으로 대표되는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형성에 자포니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제어

자포니즘, 근대 디자인, 우키요에

Abstract

Europe of 19th century was being transformed as modern society. The reason was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change of production system, and soon it became an origin of changes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The human being's energy which is the source of economic activity was changed as machinery energy and the land was changed into plant. With those changes, city's development and citizens who are the new main agent of economy were born.

These kinds of economic and social changes required new cultural changes. This was not only just for artistic exclusive property but also culture for ordinary people with large quantity production. The western Europe was attracted by orientalism that they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because their previous culture was recycled plastic historically.

Under this circumstance, Japonisme is formed. The oriental Japonisme that affected to western Europe has social features from Edo period as the result of Japanese Edo period.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Edo period is related to European modern society from a development point of view in a urbculture and a civil culture and we found that Japonisme was not just a simple curiosity of new culture.

Japonisme was not just a trend or hobby and affected to European modern society. Specifically, Japonisme's morphologic, colorful and shocking compositing expression as ready-made became a background for new esthetic and plastic materials during the period that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design were defined as mass production method. The fact that the design of modernism as geometric expression suitable for a mass production and machine aesthetics was affected by Japonisme cannot be denied.

Keyword

Japonisme, Modern Design, Ukiyo-e

1. 서론

‘디자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다. 19세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생활환경과 문화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까지 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산업사회라는 바탕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디자인은 인간의 정신적 욕구에 의한 물질적 산물로써, 이러한 넓은 의미의 디자인은 이미 인류가 탄생한 시점에서부터 행해졌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 디자인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즉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변화들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미적개념이나 조형성이 새로운 방식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과 맞지 않는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적개념과 조형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것이 ‘자포니즘(Japonism)’이다. 자포니즘은 유럽의 산업화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요구되던 새로운 미적개념과 조형성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자포니즘은 전통적 유럽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으로 디자인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근대 디자인의 토대가 되었다.

이제까지 자포니즘의 조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회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일본문화의 개방에 따라 수입된 작품들에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전통적 회화 방식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식의 표현법의 하나로 적극 받아들여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받은 영향에 관한 것으로 회화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많았다. 여기에 회화적 관점을 벗어난 연구로는 그 조형적 요소로 선이나 색채에 대한 연구에 그친다. 혹은 이에 영향을 받은 사조로 아르누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포니즘은 회화영역에만 영향을 미쳤거나 단순히 조형요소로서 새로운 제시를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에 필요한 조형적 요소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더니즘적 사고와 일치할 수 있는 완성에 가장 가까운 요소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대 디자인의 토대로써 자포니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에 디자인의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와 그에 따른 모던디자인의 시작, 그리고 자포니즘의 어떠한 특

성이 이러한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근대 모던디자인의 바탕을 자포니즘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범위는 유럽에 영향을 미쳤던 자포니즘의 생성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대표적인 우키요에(浮世畵)를 중심으로 그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다. 그 다음 그 요소들이 반영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근대 디자인 작품들을 분석하여 요소들의 유사성과 변형, 발전된 부분을 짚어본다. 이에 초기의 아르누보(Art Nouveau)의 작품에서부터 플라카스틸(Plakatstil)의 작품까지 그 특징적 요소와 변화된 형태 그리고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근대로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대두와 전개

2.1.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근대’라는 것은 원래 과거와의 결별을 고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역사적으로 변화의 굴곡마다 있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근대란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와 그 결과를 말한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의해 정치의 민주화가 가능해졌다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정치적, 경제적 평등에 의한 시민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민경우, 2003, p.136).

산업혁명의 결과로 사회의 양상은 대량생산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다. 산업화는 이전까지의 사회적 배경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근대라 불리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디자인은 발생되었다. 근대사회로의 변화와 특성은 디자인이 생성된 계기이자, 근대 디자인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바탕으로서 의의가 있다.

산업혁명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로 영국에서 시작되어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며, 르네상스시대에서부터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자연과학의 발전과 봉건사회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계층의 탄생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에너지 원천을 인간에서 기계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 제임스 와트(James Watt)에 의해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이는 곧 인간의 노동에만 의존하던 농경사회와의 결별을 고하는 계기가 된다(알랭 배유, 2008, p.154).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계 에너지는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곧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뜻한다.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은 인간 노동의 현장을 ‘땅’에서 ‘공장’으로, 삶의 거주지를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켰다.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은 생산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 생산적 측면에서 도시의 인구 증가는 새로운 생산방식에 의해 부를 재분배 받는 사람의 증가를 뜻하며, 부의 재분배는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층의 형성을 가져온다. ‘땅’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기계생산에 투자됨으로써 대량생산에 가속화를 부추겼다. 소비적 측면에서 도시 인구의 증가는 대량생산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시의 인구증가는 구매력의 증대를 가져왔고, 늘어난 구매력에 맞추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단가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였으며 공급이 증대되고 생산 원가는 감소되었다. 즉 생산과 소비가 서로 맞물리면서 그 양이 증대되는 현상을 촉진시킨 것이다(필립 B.맥스, 2002, p.154).

이렇게 인간이 농경에 중심을 둔 봉건사회에서 기계생산과 산업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근대의 시작으로 본다. 이는 단순히 생산의 근원이 변했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계층의 등장, 돈을 가진 자본가, 즉 부르주아와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으로 이주한 시민, 노동자의 탄생과 이전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연주의적이고 정신적 가치에 중심을 두던 사고에서 이성중심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정신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뜻이 된다.

이러한 이성중심의 기능주의적 사고는 디자인의 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새로운 시대와 생산방식에 알맞은 형식의 디자인이 요구되기 시작할 배경이 된 것이다.

2.2. 근대사회로의 변화와 디자인의 전개

‘근대’라는 개념은 이전의 전통주의에 상응하는 의미로 과거의 사회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탄생을 의미한다.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생산방식으로서의 변화, 즉 산업혁명이 그런 의미에서 근대화, 모던의 시작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다.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과거와는 다른 형식과 방법이 생겨났다. 근대사회 이전에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이란 용어의 사용은 없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로 디자인이란 자연의 형상을 모방하거나 과거의 형식을 빌려 쓰는 장식적 의미로써 사용되어지던 것이

다.

프리트 엠케(Fritz Hellmut Ehmcke)가 말하길, “상업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15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경제와 상업도 전반적으로 성정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알랭 베유, 2008, p.11)라고 하며, 산업의 발전에 따라 디자인이라는 분야의 재해석과 중요성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산업화에 따른 근대사회로의 변화이후 ‘3M의 시대’¹⁾가 도래하면서 생산의 대량화와 분업화 그리고 대량소비 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등 복잡해진 구조는 과거의 전통적 디자인 방식으로 맞추기에는 벅찬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화와 그에 걸맞지 않는 역사주의적 디자인의 폐해는 초기 산업혁명시기의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디자인은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거나하는 역사주의적 성향이 짙었고, 대체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도에서 단지 많이 팔기 위해 눈에 띄기 위한 의미 없는 장식과잉에 몰두했다. 이러한 디자인의 현상은 산업혁명의 총아인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1851년 영국에서 개최된 런던 만국박람회는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알리고,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는 충분했지만, 상품의 질적 하락과 생산법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디자인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오히려 같이 전시된 수공예의 우수성을 돋보이게 만든 역효과도 있었다(민경우, 2003, p.138).

산업혁명의 결과로 초래된 조잡한 대량생산의 결과물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생산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산업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사회에 걸맞은 양식을 모색하며, 기능적인 미의 추구하고 사고방식의 디자인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를 실천하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 디자인의 시작이다.

가장 먼저 디자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미술공예운동(The Arts and Crafts Movement)’이다. 미술공예운동의 주창자인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예술가이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과 함께 시대에 알맞은 디자인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는 디자인이 산업화와 과학화를 겪으면서 심미성과 창의성이 결여된 것으로 저하됐다고 믿고, 산업화의 밑바탕이 된 과학적 사고방식이 시작되던 르네상스시기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에 디자인의 방식을 예전 중세적 형

1) Mass Communication, Mass Production, Mass Media

태로 되돌려 산업화에 따른 디자인의 저하를 막고자 했다. 기계에 의한 생산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향유될 수 있는 저급문화로 변질된 원인이라 여겨 이를 사람에 의한 수공예방식으로 되돌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고급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술공예운동은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미 기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던 것이다. 수공예방식의 디자인은 대량공급에 맞춘 수요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겐 역부족 이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비판한 바와 같은 극소수의 부유층의 사치를 위한 예술로 전락하고 만다(권명광, 명승수, 1995, p.17).

미술공예운동은 산업화에 알맞은 새로운 디자인 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새로운 방식을 강구했다는 점에서는 근대 모던디자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디자인 실천 방식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었다.

‘아르누보’는 1890년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전 유럽에 걸쳐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다. 아르누보는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영역을 아우르는 유행으로 말미암아 예술과 디자인의 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아르누보란, 1895년 사뮈엘 빙(Samuel Bing)이 연 미술점 ‘메종 드 라르 누보(Maison de L’art nouveau)’에서 나온 말이며,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미술양식을 뜻한다.

아르누보는 형태적으로 유기적 곡선, 비대칭형, 평면성, 화려한 장식 등의 특성과 꽃, 여자, 식물의 줄기 등을 주소재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아르누보를 세기말적 유행으로 치부해 버리는 특징일 수 있다. 아르누보는 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 각 나라별로 또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띄면서 발전했고 그런 연유로 각 나라별 그 명칭 또한 다양하다.

아르누보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다소 간소한 형태를 보인다.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에 기계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일상생활의 그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국 아르누보는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관련되어 발전했는데, 대표적 작가로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와 아서 맥머도(Arthur H. Mackmurdo) 그리고 베가스텝스(The Beggarstaffs) 등이 있다. 이러한 영국의 아르누보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4인그룹(The Four)’

과 그에 이어지는 오스트리아의 분리파(Sezession)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써 영국의 아르누보는 아르누보가 성행하던 시기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의 영향을 받은 여러 운동의 계기가 됨으로써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 형성의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르누보가 가장 화려하게 자리 잡았던 곳은 프랑스다. 프랑스의 아르누보는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Henri de Toulouse-Lautrec)로 대표되는 카페 ‘검은 고양이(Le Chat Noir)’의 예술가들에 의해 발달했다. 포스터의 새 지평을 연 로트레크의 ‘몰랭루즈의 라 굴리(La Goulue au Moulin Rouge)’와 같은 작품은 ‘신예술’이라는 아르누보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알퐁스 무샤(Alphonse Mucha)의 등장은 로코코 양식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아르누보의 완성형을 보여준다.

독일은 아르누보 양식을 ‘유겐트스틸(Jugendstil)’이라 칭하였다. 이는 잡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아르누보와 독일 전통양식과의 조합을 이룬 독일 특유의 아르누보스타일을 말한다. 독일 아르누보의 대표작가인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는 이러한 독일 특유의 중세적 형식과 아르누보 양식의 적절한 조화로 자국만의 독특한 아르누보의 발전은 물론 이후 한 발 더 나가 근대 모더니즘의 형태를 완성해나간다. 산업화에 따른 디자인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페터 베렌스의 생각과 디자인적 실천은 이후 ‘독일공작연맹(Deutsch Werkbund)’과 ‘바우하우스(Bauhaus)’ 이념의 초석이 된다.

아르누보는 세기말에 시작되어 잠시 동안 넓은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디자인 양식이다. 이전의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는 달리 기계생산이나 산업사회에 대한 거부 없이 오히려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긍정적 태도로 받아들였다. 비록 그 형태적 특징으로 그러한 의도는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는 새로운 기계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첫 시도였으며, 아르누보 이후의 아르누보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근대 디자인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권명광, 명승수, 1995, p.56).

20세기의 초반에서부터 중반까지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세계 대전은 사람들에게 기계문명과 산업화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에 전쟁이 관련된 다양한 포스터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포스터들은 19세기 말부터 진행되어온 디자인적 양식과 모던 아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표현

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의 창조에 힘을 쏟고 있었다(필립 B.맥스, 2002, p.288).

독일의 '플라카트스틸'은 이러한 전쟁과 관련이 있다. 플라카트스틸은 독일어로 포스터 스타일을 뜻하며, 대표적 작가로 루시엔 베른하르트(Lucian Bernhard)와 루드비히 홀바인(Ludwig Hohlwein)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아르누보의 특성을 물려받은, 툴루즈 로트레크에서부터 베가스텝스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 당시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후의 현대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2.3.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성

디자인에 있어서 19세기에 시작된 그것을 모더니즘이라는 용어에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19세기의 사회적 변화만큼 디자인의 영역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현대적인 의미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된 것도, 또 그에 따른 디자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도 19세기를 기점으로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성은 그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근대 디자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미술공예운동의 디자인 대중화와 디자인 품질의 고급화 지향적 특성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저하된 디자인 품질에 대한 대안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실천적 면에서 미술공예운동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중세방식을 고집하여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근본적 이념은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술공예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영향을 받은 새로운 양식에 열광하는 아르누보가 시작되어 발달해 나갔다. 그 당시 유럽은 변화된 사회에 따른 새로운 계층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예술적 표현법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아르누보는 단어 그대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며 그 새로운 양식으로서의 형태적 특징으로 유기적인 선과 실루엣을 이용한 평면적 표현을 주로 이용했다. 초기와 그 정점을 이뤘던 프랑스의 아르누보는 새로운 형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 역시 지나친 장식적 성향에 점차 그 형태를 변화해 간다. 이것은 유럽전역에 걸쳐 일어났던 아르누보가 각 나라별 다른 모습으로 그 특성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파의 아르누보와 오스트리아 분리파

의 아르누보가 점차 유기적 곡선에서 기하학적 직선의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 오스트리아 분리파의 전시회 포스터를 기준으로 보면 그 스타일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필립 B.맥스, 2002, p.251). 또 독일 아르누보 유겐트스틸의 작가였던 페터 베렌스의 디자인도 점차 그 형태를 발전해 나간다. 그의 디자인은 사회적, 기술적 문제와 예술과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해답으로 기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적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계생산에 적합한 미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페테 베렌스와 독일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생각에 결과물로 독일공작연맹을 결성하고, 그 이념적 사상은 바우하우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자인적 특성은 점차 이성중심의 기계미학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기계미학적 흐름은 세계대전을 전후해 더욱더 정점으로 다가간다. 이에 디자인은 단순화 하고 간략화 하여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디자인의 형태로 그 특성을 형성해 나간다. 루시엔 베른하르트의 포스터에 나타난 형태들은 간략화한 형태가 얼마나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성은 산업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산업화는 대량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량생산이라는 것은 새로 생겨난 도시와 도시의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의 중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부산물들의 생산은 과거의 형식을 답습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과거의 형식을 과감히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에 욕구와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또 디자인이라는 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중요성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은 점점 산업사회에 알맞은 기계미학과 대량생산에 알맞은 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이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며 객관적인 형태미라는 특성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3. 자포니즘의 형성과 근대 유럽에 미친 영향

3.1. 새로운 자극으로서 자포니즘의 형성과 영향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여러 대륙의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막연하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용어의 탄생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현상이며,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

들의 동양 또는 동양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 또는 담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뜻이다.

동양과 서양, 특히 유럽의 아시아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은 17세기 중국의 도자기를 중심에 두는 중국적 취미 '시누아즈리(Chinoiserie)'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누아즈리는 중국풍 양식으로 17~18세기 유럽에서 성행한 중국적인 기풍이나 스타일로 만들어진 예술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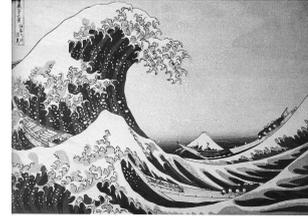
중국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청나라의 도자기 수출의 금지와 19세기 일본의 문호개방에 따라 일본의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간다. 중국으로부터의 도자기 유입이 적어지자 이를 대신해 일본의 도자기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시누아즈리와 마찬가지로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본풍의 예술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일본풍의 유행과 취향을 '자포네즈리(Japonaiserie)'라 칭하였다.

200년 가까이 쇠국정책으로 일관하던 일본은 1853년 미국에 의해 강제 개항이 이루어졌다. 완전 개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가사키(長崎)를 통해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있었지만 이는 유럽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정도였다.

개항 당시 일본은 에도(江戸)시대였다. 에도의 문화는 문호개방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이러한 일본문화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862년 영국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일본이 최초로 유럽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도자기와 차, 미술품들이 소개되면서 유럽은 일본문화와 예술에 고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일본풍을 뒤쫓는 자포네리즈를 넘어서 일본문화의 요소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자포니즘'이라 칭한다.

초기의 자포니즘은 주로 도자기와 공예품 중심이었다. 하지만 도자기를 적송하기 위해 쓰인 판화 인쇄물을 접한 유럽인들의 관심은 이 인쇄물로 이동하게 된다. 자포니즘의 가장 중심으로 떠오른 이 판화 인쇄물이 바로 우키요에였다. 우키요에는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로 '에도에(江戸畫)'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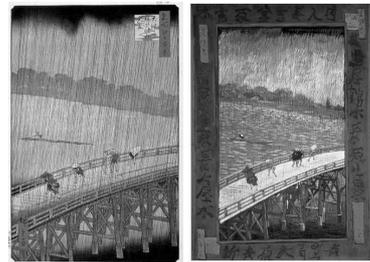
문호개방 이전에도 몇몇의 화상에 의해 유럽에 우키요에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1856년 프랑스에서 [그림 1]의 작가인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의 목판화집이 소개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후 파리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더욱더 동양의 문화에 대해 유럽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가츠시카 호쿠사이, '가나가와에서 본 후지산'

출처: <http://arts.search.naver.com/>

동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벗어나 하나의 사조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자포니즘의 대표적인 우키요에는 유럽의 다양한 예술분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impressionism)' 화가들은 이러한 우키요에의 색채와 구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예이다. 마네(E. Manet)와 모네(C. Monet) 그리고 후기의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등의 회화에서 우키요에의 영향은 [그림 2]와 같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우타가와 히로시게, '오하시아타케의 소나기' (좌)와 반 고흐, '일본풍 :빗속의 다리'(우)

출처: 이연식.(2009).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경기도: 아트북스.

이들 회화는 단순히 일본풍의 소개를 가져다 쓰는 것에서부터 우키요에의 표현을 차용하여 구도나 색채를 적용하는 것까지 발전시킨다. 이들의 이러한 자포니즘에 대한 관심과 자기화는 단지 유행하는 하나의 흐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법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컸었다. 이렇게 새로운 표현법의 제시로서 자포니즘, 특히 그중에서 우키요에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근대 회화의 영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포니즘은 근대 디자인의 형성 그 시작을 같이 한다.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던 디자인 사조로서의 아르누보와 디자인 운동의 시초로서의 미술공예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식과 미적 감각으로 각광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공예와 건축분야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르누보’라는 단어의 뜻처럼 이제껏 없었던 산업사회 알맞은 새로운 양식과 조형미를 갈망하던 근대사회 디자인 형성기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던 것이다.

3.2. 에도시대 예술의 특성과 우키요에

유럽에 자포니즘이라는 사조가 생길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문화는 에도시대의 예술문화였다. 에도시대는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전국을 통일하며 ‘다이쇼군(大將軍)’의 자리에 오르며 자기의 영토였던 에도, 지금의 도쿄에 ‘바쿠후(幕府)’를 개설하면서 시작하였다. 에도는 천황이 머물렀던 명목상의 수도인 교토와는 달리 새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으며,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전까지 일본의 사실상의 수도로 그 역할을 했다.

에도시대의 일본은 유래 없는 안정된 시기를 맞이한다. 안정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문화적 발전을 가져왔다. 에도 시대의 정치·사회적 특징으로 봉건 영주인 ‘다이묘(大名)’의 반란과 경제적 힘의 축적을 막기 위한 ‘산킨고타이(參勤交代)’ 제도²⁾의 실시, 엄격한 신분제도 확립, 강력한 쇄국정책, 신관들의 문화적 영향력의 축소, 도시와 상업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마쓰오 바쇼 외, 2006, p.18). 이러한 바탕은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문화적 집중과 더불어 서민문화와 도시문화라는 분야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산킨고타이’로 인해 지방 영주의 부와 소비의 중심이 에도로 집중되고, 이러한 에도라는 도시의 발달은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도 시민계급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여기에 이들의 예술에 대한 통제권 획득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기득권층만을 예술이 아닌 대중들에 의한 예술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기폭제가 되었다.

발달된 도시예술, 서민예술은 물질 번영에 의한 오락과 여흥문화, 즉 가부키(歌舞伎)문화와 유곽문화의 발달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에 출판문화의 발달이 더해져 이런 현상의 결과로 우키요에가 등장하게 된다. 가부키 배우나 그 줄거리 그리고 유곽의 미녀에 대한 소유와 향유는 특정계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 또한 이러한 문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소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출판물의 한 형태인 우키요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에도시대의 대표적 미술품으로, 또 유럽의 자포니즘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미술품으로 우키요에를 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러한 에도시대 예술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에도시대 이전뿐만 아니라 통상의 미술품이란, 미술품을 주문하고 소비하는 계층이 특정한 상류계급이며, 그 목적 또한 주로 계급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다. 하지만 에도시대의 사회적 특성상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초닌(町人)’이라 불리는 상공업자들의 성장과 도시와 시민문화의 발달은 미술의 주 소비층을 상류층이 아닌 시민계층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술품은 대량 제작되어야 했고, 이러한 이유로 목판인쇄 출판물의 한 형태였던 그림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발달된 것이 바로 우키요에였다. 따라서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또 이러한 에도시대의 미술품에 영향을 받은 유럽 자포니즘의 대표적 미술품으로 우키요에를 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 자포니즘의 특성과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관계

유럽에서 단순한 일본풍의 취미를 넘어서 자포니즘이라는 하나의 사조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된 중심에는 우키요에가 있었다. 따라서 자포니즘의 특성은 우키요에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디 우키요에의 뜻은 ‘근심스러운 세상(憂世)’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나, 근세에 들어와 ‘잠시 동안만 머물 현재라면 조금 들뜬 기분으로 마음 편히 살자’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면서 긍정적 뉘앙스의 ‘우키요(浮世)’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고바야시 다다시, 2004, pp.14-15). 이러한 우키요에 생성배경의 특성은 우키요에의 소재의 특성임과 동시에 그림 주제의 특성을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즉, 우키요에는 세상을 즐기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그에 따라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 즉시를 즐기고 향락적인 서민문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키요에는 다색 판화로써 한 사람의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니다. 우키요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림 3]처럼 ‘한모토(版元)’라 불리는 출판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팀이 있어야지만 가

2) 도쿠가와 막부가 전국의 다이묘와 조정 대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적으로 에도에 출사하여 쇼군을 섬기고, 일정 기간 후에는 ‘고타이交代’라는 휴가를 얻어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정무를 보도록 하는 제도. 이에 에도에는 지방 다이묘에 딸린 가족과 시중을 드는 수행원들에 의한 경제적 축적과 문화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지방으로 전파되는 문화 교류의 계기가 된다(마쓰오 바쇼, 2006, p.18).

능했다. 우키요에의 밑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에시(繪師)’와 판화의 조각사인 ‘호리시(彫師)’, 그리고 인쇄사인 ‘스리시(摺師)’ 등의 기술자들을 포함하여 이 모든 인원이 갖추어져야지만 제작이 가능했다. 이것은 완벽한 분화에 의한 공정이었으며, 한 사람에 의해 제작되어지는 예술품과는 다른 의미의 것으로서, 우키요에만의 특성인 것이다.



[그림 3] 우타가와 구니사다, ‘우키요에 판화 공방의 모습’
출처: 이연식.(2009).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경기도: 아트북스.

이렇게 만들어진 우키요에는 애초에 어느 누군가의 의뢰에 의한 작업이 아니었다. 특정 주문자의 주문에 의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터 광범위한 계층 모두를 겨냥하고 제작된 다음 상점에 진열되어 주인을 기다리는 ‘상품’이었다. 즉, 손님들의 자발적 선택을 기다리는 비주문화(非注文畫)이자 기성품이라는 것이다(고바야시 다다시, 2004, p.22).

이렇게 분화작업을 통해 기성품으로 대량생산되는 우키요에의 특징은 표현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우키요에의 밑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에시’들은 주로 현실의 풍속에 민감하고 시대의 흐름에 가장 빨리 선두에 섰던 에도라는 도시의 시민이었다. 이들이 그려내는 우키요에는 기성품으로서 상품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유행에 민감해야 했고 또 유행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이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키요에의 표현기법은 전통적인 관습을 벗어난 세련되고 처음 보는 새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세련된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우키요에는 분화작업을 통해 대량 제작되는 다색판화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 제작되는 유품화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법인 단순한 형태미와 강렬한 색채, 대담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고스란히 자포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소재적인 면에서 일본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쓰는 것을 넘어서 우키요에의 특성인 단순화된 색채와 형태표현, 평면적인 형태, 유기적 선의 사용, 극적인 구도 등을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고

스란히 장식미술, 응용미술이라 불리던 현재의 디자인영역에도 나타난다. 그 시작이 아르누보다. 아르누보는 우키요에가 보여주는 그래픽 아트적 특성의 개념을 서구에 도입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늘어난 출판물이나 광고물에 이러한 특성을 적용시킴으로서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로트레크의 포스터나 비어즐리의 삽화 등은 우키요에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로트레크의 포스터에 나타난 실루엣만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자포니즘적 표현법은 베가스텝스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된다. 베가스텝스의 그래픽 작품은 형태를 마치 종이를 오려 놓은 듯 단순하게 표현한다. 여기에 색채는 단순하고 강렬한 것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표현법은 후에 루시엔 베른하르트나 루드비히 홀바인의 작품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특히 이러한 흐름의 정점에 이른 루시엔 베른하르트의 작품은 단순화와 간략화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을 형태와 기호의 시각 언어로 이동시켜 놓았다(필립 B.맥스, 2002, p.289).

자포니즘의 유기적인 형태도 계속 변형되며 영향을 준다. 초기의 아르누보에서 보이던 유기적인 곡선들의 표현법은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어즐리의 삽화에서 보이는 표현법은 우키요에의 그것과 흡사하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면 기하학적인 표현법으로 변형된다. 클래스고의 4인그룹과 분리파의 작품은 그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 한 형태의 표현이나 과감하고 강력한 색채의 사용은 이후 기하학적 형태로 발전해가는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단초가 된다.

[표 1]은 자포니즘의 대표적인 표현 특성을 단순성, 평면성, 선에 의한 표현으로 분류하여 근대 디자인에 나타난 흔적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자포니즘적 특성이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에 영향을 주게 된 근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유럽이 근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표현법에 대한 욕구에 의해 자포니즘의 특성이 받아들여졌다기보다 자포니즘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일본 에도 시대의 예술 문화 형성의 사회적 상황과 유럽 근대사회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민문화의 발달과 그에 따른 예술의 대중화, 그리고 그에 맞출 수 있게 대량 생산되어야 하는 예술 상품들. 그러한 예술 제작방식에 따르기 위한 미적 표현법으로 최적화 되었던 우키요에의 특성, 즉 자포니즘의 특성이 유럽인들이 고민하고 있던 대량생산체

제에 알맞은 새로운 형식에 부합했던 것이다.

단순성				
	틀루즈 로트레크, '물랭루즈에서 굴뤼'	베가스텝스, '돈키호테의 포스터'	루시엔 베른하르트, '스틸러 포스터'	루드비히 홀바인, '남성복 포스터'
평면성				
	틀루즈 로트레크, '아리스트 브뤼앙의 포스터'	윌리엄 브래들리, '인랜드 프린터 표지'	콜로만 모저, '성스러운 봄의 페이지'	베르톨트 뢰플러, '극장식 카바레 포스터'
선애의 한 표현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삽화'	마거릿 맥도날드, '성스러운 봄의 표지'	찰스 레니 매킨토시, '스코틀랜드 음악 평론 포스터'	콜로만 모저, '제13회 세션 전시회 포스터'

[표 1] 우키요에의 특성과 그 영향

그림 출처: 필립 B.맥스.(2002).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황인화 옮김. 서울: 미진사.

5. 결론

19세기 유럽은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산업혁명'이라는 명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변화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대량생산은 경제적 부분에서 부의 재분배를 가져왔다. 또한 생산의 근거지를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시켰다. 이는 도시라는 배경으로 새로운 부의 주체가 된 계층의 생성이라는 사회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주체로서 도시의 시민계층과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식과 문화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동양의 예술품들은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중 하나의 취미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조로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자포니즘이다. 자포니즘으로서 유럽에 영향을 미쳤던 일본예술은 일본 에도시대의 것이다.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미술품인 우키요에는 자포니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우키요에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일본 에도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있고, 그것은 바로 도시문화와 '초난'이라고 불리는 시민계층의 성장에 따른 시민문화의 발달이다. 평범한 시민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즉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예술은 그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이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미적 특성을 지닌 형태로 발달하였고, 그 결과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도 동양적 감수성을 고스란히 살린 우키요에라는 다색판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일본의 에도시대의 배경은 서양의 근대사회 발달과 많이 닮아있다. 귀족중심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변화를 겪던 시기에 유럽은 변화된 새로운 사회와 생산방식에 알맞은 형태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우키요에로 대표되는 자포니즘의 영향은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유럽의 디자인의 문제점이던 대량생산에 따른 미적가치의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평면적 형태와 단순한 실루엣의 표현 그리고 대담한 색채의 사용과 극단적인 구도는 대량생산의 산업형태에 알맞은 표현법인 동시에 유럽의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이 추구하던 기하학적 형태의 바탕이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서구 유럽의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의 형성에 있어서 동양의 미적 요소가 미친 영향에 대해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예술문화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비록 서구에 미친 동양의 미적 요소가 유럽인들의 일방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었다고는 하지만 서구의 근대 모더니즘 디자인에 있어서 동양의 미적요소는 분명히 그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또 그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 유사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명광, 명승수.(1995). 근대디자인사. 서울: 미진사.
- 고바야시 다다시.(2004). 우키요에의 미. 이세경 옮김. 서울: 이다 미디어.
- 마쓰오 바쇼.(2006). 하이쿠와 우키요에 그리고 에도시절. 김 향 옮김. 서울: 다빈치.
- 민경우.(2003).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 알랭 배유.(2008). 그래픽디자인-이미지 구성의 역사. 김소라 옮김. 서울: 시공사.
- 이연식.(2009).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경기도: 아트북스.
- 필립 B.맥스.(2002).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황인화 옮김. 서울: 미진사.
- <http://arts.search.naver.com/>